

파주시 임진강전망대 평화정 현판식 개최

파이낸셜뉴스 입력 : 2020.09.24 23:59 수정 : 2020.09.25 00:07



파주시 24일 임진강전망대 평화정 현판식. 사진제공=파주시

【파이낸셜뉴스 파주=강근주 기자】 파주시는 24일 군내면 노상리 민통선 내 임진강 전망대에서 평화정 현판식을 개최했다. 이날 현판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, 한양수 파주시의장 등 시의원, 장단지역 단체장이 참석했다.

평화정이 설치된 임진강전망대는 민통선 내 임진각 평화 곤돌라 북측 탑승장에서 내려 약 300m 올라가면 있는 곳으로 DMZ와 민통선 내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.



파주시 24일 임진강전망대 평화정 현판식. 사진제공=파주시

임진강전망대에 오르면 임진강과 장단반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분단과 평화를 반추케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에 취하고, 겨울에는 눈 덮인 임진강 운치를 완상할 수 있다.

또한 전망대에는 평화정을 비롯해 임진강을 바라보는 평화등대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용했던 도보다리를 재현해 그때 감동을 다시금 느끼도록 했다.



파주시 24일 임진강전망대 평화정 현판식. 사진제공=파주시

최종환 파주시장은 "코로나19가 진정되면 임진강 전망대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

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평화정 현판식은 코로나19로 방역이 갖춰진 상태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.

kkjoo0912@fnnews.com 강근주 기자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